

[보도자료]

이 자료는 2012년 4월 27일(금)에 배포되었습니다.

비양육 미혼부의 자녀양육비 제공 의무,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자녀 대부분은 아빠로부터 양육비 받지 못해

한국여성정책연구원, “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” 주제로 제75차 여성정책포럼 개최
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.

배 포 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배포 날짜 : 2012년 4월 27일(금)

보도 날짜 : 2012년 4월 27일(금)

언론담당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

(연락처: 02-3156-7296, 이메일: aeri2008@kwdimail.re.kr)

내용문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미 정

(연락처: 02-3156-7154, 이메일: mjnglee@kwdimail.re.kr)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www.kwdi.re.kr, 원장 최금숙)은 오는 5월 2일(수)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“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”을 주제로 제75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.

제75차 여성정책포럼 개최



- ☐ 주제 **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**
- ☐ 일시 2012년 5월 2일(수) 14:00 ~ 17:00
- ☐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
- ☐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- ☐ 최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양육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증가하는 등 미혼모의 양육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.
- ☐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데,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.
- ☐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제공 의무에 태만하면 자녀의 복리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는데, 이는 미혼모 자녀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.
- ☐ 이에 이번 포럼은 미혼모 가족에 있어서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, 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.
- ☐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“미혼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관련 실태 및 과제”를 주제로,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기획홍보팀장이 “미혼모들이 경험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소송 서비스”를 주제로,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이 “선진국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제도”를 주제로,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“미혼부의 법적 책임 강화 방안”을 주제로 발표하며,
 - 김선영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, 박영미 한국한부모연합 고문, 오영나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, 이정연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.

☐ 발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.

※ 본 자료는 2011년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지원으로 수행된
『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』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.

☐ 양육비 청구 및 이행과 관련된 미혼모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함. 본 설문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양육미혼모 213명으로 조사기간은 2011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임

☐ 조사대상 양육미혼모의 35.2%가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. 응답자의 3분의 1정도만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음

○ 조사대상자의 자녀 대다수가 3세 미만의 영유아로, 1세 이상 3세 미만의 자녀가 36.5%로 가장 많고, 1세 미만은 34.7%임.

☐ 양육미혼모의 14.6%가 자녀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고, 전체 조사대상자 중 9.4%만이 매달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(<IV-4>참조)

- ☐ 양육비와 관련하여 미혼모가 처한 상황과 아이 아빠 양육비 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는 관련성이 있음
- ☐ 아이아빠가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미혼모의 경우가 양육비를 받거나 향후 소송의사가 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. 반대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미혼모의 경우 소송의사가 없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

<표 VI-13> 미혼부 양육비 책임별 양육비 관련 현황
(단위: 명, %)

구분	합계	책임없다	책임있다
양육비 받음	31 (14.6)	2 (7.4)	29 (15.6)
양육비 소송중	6 (2.8)	0 0.0	6 (3.2)
양육비 소송완료 되었지만 받지 못함	3 (1.4)	0 0.0	3 (1.6)
양육비 소송 의사 있음	47 (22.1)	2 (7.4)	45 (24.2)
양육비 소송 의사 없음	126 (59.2)	23 (85.2)	103 (55.4)
합계	213 (100.0)	27 (100.0)	186 (100.0)

□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는 14.6%(31명)의 경우 양육비를 받은 경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27명, 법적 소송은 4명으로 소송을 통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. 전체적으로 보면 양육 미혼모가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줌.

○ 양육비를 받았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를 보더라도, 현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전체의 35.6%로 조사대상자의 1/3을 넘고 있어 양육비 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음

○ 월평균 양육비는 40만원 초과가 32.3%로 가장 많고, 두 번째가 10만원 이하로 29.0%, 20만원초과-40만원 이하가 25.8%, 10만원초과-20만원이하 12.9%로 나타남. 이들이 받는 양육비의 중간값은 32.5만원으로 나타남

<표 VI-14> 양육비 관련 현황 :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는 집단
(단위: 명, %)

구분	명수	비율
양육비 받는 경로		
당사자간 합의로	27	87.1
법적소송을 통해서	4	12.9
양육비 받는 형태		
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	20	64.5
형편이 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받음	3	9.7
매월 정기적으로 받다가 불규칙하게 받고 있음	2	6.5
양육비를 받았는데 지금은 주지 않음	6	19.4
월평균 받는 양육비		
10만원 이하	9	29.0
10만원 초과-20만원 이하	4	12.9
20만원 초과-40만원 이하	8	25.8
40만원 초과	10	32.3
중간값		32.5
합계	31	100.0

□ 양육비를 받고 있거나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양육미혼모를 제외하면, 조사대상자의 대다수인 72.8%는 양육비 소송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.

○ 소송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양육비 문제를 통해 연락 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아서(44.4%),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를 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(20.6%), 양육비를 대가로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할까봐(14.3%) 순으로 나타남.

-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아이아빠와 연락하거나 아이를 아이아빠에게 빼앗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여 소송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.

- 이는 미혼모를 대신하여 아동양육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행하는 기관이 필요함을 보여줌.

- 미혼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향후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.
 - 양육비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
 - 양육비 청구지원 상담서비스 강화
 - 소득인정액에서 양육비 제외
 - 임의인지 절차의 개선
 -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
 -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보완
 -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
 - 양육비 전담기구 설치·운영

붙임 1.

<프로그램>

시 간	구 분	세 부 내 용
14:30~15:00	등 록	
14:00~14:10	개회식	사 회 : 이택면(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·평가팀장) 인사말 : 최금숙(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)
14:10~15:40	주제발표	사 회 : 은기수(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) 발표 1 미혼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관련 현황 및 실태 이미정(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) 발표 2 미혼모들이 경험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소송 서비스 최형숙(한국미혼모가족협회 기획홍보팀장) 발표 3 선진국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강지원(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) 발표 4 미혼부의 법적 책임강화 방안 박복순(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)
15:40~16:00	휴 식	
16:00~16:50	토 론	김선영(한국미혼모가족협회) 박영미(한국한부모연합 고문) 오영나(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) 이정연(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)
16:50~	종합토론	